

속회자료

2013 년 3 월 31 일 부활주일 설교 요약

와싱턴한인교회 김영봉 목사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15)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Our Toils Are Not In Vain)

-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15:50-58

1.

Happy Easter!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고전 15:20)

"잠 든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사람들이 모두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것을 믿고 나서, '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모든 죽은 자들이 언젠가 부활하겠구나!'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믿었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파가 만나면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하곤 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파 유대인답게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 바울이, 예수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선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날이 오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을 선전하는 사람들이 유대교를 망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들을 박멸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피신한 예수 쟁이들을 잡으러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워낙 똑똑한 사람이었고 또한 율법에 대해 통달하고 있었기에 바울은 이 사건을 두고 곰곰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만 일어나리라고 생각했던 부활이 미리 한 사람에게 일어났다면, 그는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에게 부활이 일어났으니, 마지막에 모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이 틀림 없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부활 사건을 축하하는 한 편,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부활 사건을 기억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부활절 예배의 의미는 반쪽이 되고 말 것입니다.

2.

사실, 믿음이 좋은 분들이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몸의 부활'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는 믿음도 있고, 어떤 형태로든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도 믿고, 천국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것도 기대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을 믿기 위해서 추가적인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 있다면,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이 몸으로 부활하는 것도 믿을 수 있습니다.

부활은 죽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인해 멈춰졌던 상태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만, 죽음 이후로 나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지금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입니다. 부활이 죽음 이전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라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지만, 죽음 이후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것일지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거기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와 같이 된다는 말은 영혼만이 존재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영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인해 분리되었던 영혼과 육신이 다시 합하고 변화되어 영원히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는"(54 절) 것입니다.

"천사와 같이 된다"는 말씀은 따라서 지금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차원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천사와 같이 된다"는 말은 또한 지상에서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겠지만, 우리의 모든 관계는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3.

그 동안 제가 마주했던 부활에 대한 질문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부활할 때 우리가 어떤 몸을 가지게 될 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몸이 부활한다고 생각할 때, 여러 가지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몇 살 때의 몸으로 부활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장 아름다웠을 때의 모습'으로 부활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대답이 되지 않습니다. 미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형을 한 사람들은 성형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부활하면 어쩌나 걱정할지 모릅니다. 이 모든 질문들은 '몸의 부활'을 옛날 몸으로 되살아나는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말이지만, 부활은 옛날 몸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한 몸을 "신령한 몸"(고전 15:44)이라고 불렀습니다. 신령한 몸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통해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몸이 다시 부활한다면 화장(火葬, cremation)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도 역시 오해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우리가 아는 세상 모든 것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그 능력으로 죽은 자들을 부활시킬 것입니다.

셋째, 만일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인류 역사상에 살았던 모든 인간이 몸으로 부활한다면 이 지구는 발 디딜 틈이 없을 것 아니냐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른 보면, 부활 신앙의 맹점을 찌르는 질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지구가 그대로 있고 모든 죽었던 사람들이 옛 몸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의 세상은 더 이상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세상이 아닐 것이며,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우리가 아는 그런 몸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있을 몸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에 눈을 떠야만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차원으로 옮겨가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몸의 부활을 믿는다 해도,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우리의 영혼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몸과 합하여 신령한 몸을 이룰 것이라는 사실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4.

어떤 분들에게는 이 모든 이야기가 딴 세상 이야기처럼 들릴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도 먼 이야기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몸의 부활이 간절히 기다려지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부활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에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진실로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했기에 믿는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믿는 것이고,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게 해 주셔서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눈 뜨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는 것이며,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목표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기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의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처럼 전혀 다른 시각으로, 전혀 다른 목표를 위해, 그리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은 물질을 전부로 알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사는 방법을 보며 조롱합니다. 비판합니다. 때로는 박해하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도 육신을 입고 물질을 사용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자주 영적인 세계를 망각하거나 무뎠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걸음은 흔들립니다. 혹시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 헛 것을 잡은 것은 아닌가? 이 시간, 이 노력, 이 돈을 다른 데 사용하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을까?

바로 이 때, 부활 신앙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장차 우리 모두가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육신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흔들리는 걸음을 바로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귀한 시간과 돈과 정력이 낭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인 교회와 영혼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만이 진실로 영원한 것임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5.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신비로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저희 눈을 열어 주소서.

저희 마음을 만져 주소서.

저희 귀를 열어 주소서.

주님 나라 보게 하시고 그 나라를 살게 하소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죽어 천국에 이르며 마지막 부활에 참여하게 하소서. 아멘.